

Embraer 의 해외부패방지법 (FCPA) 기소유예약정 및 적절한 내부 관리 필요성 입증을 위한 2 억 5 백만 달러의 지불



2016 년 11 월 30 일 Julie Bauman 작성

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Embraer SA (Embraer, 엠브라에르)는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주고 회계 기록을 위조하여 해외부패방지법 (FCPA)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2 억 5 백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다. 미국 정부는 Embraer 가 정부와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, 사우디 아라비아 및 모잠비크의 정부 공무원을 수백만 달러로 매수하였으며 허위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인도에서 수백만 달러를 부당하게 지불한 혐의를 제기하였다.

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, Embraer 는 미 법무부에 3 년의 기소유예약정에 따라 1 억 700 만 달러, 미 증권 거래 위원회(SEC)에 부당이익환수 및 이자를 포함하여 9 천 8 백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. 기소유예약정의 일환으로, Embraer 는 적절한 내부 회계 관리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, 해외부패방지법의 뇌물 방지 조항 및 장부 기록 조항 위반을 인정했다. Embraer 는 3 년 기간 동안 독립된 관찰 유지를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 준법 조치 이행에 동의했다.

2008 년, Embraer 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로부터 8 대의 군용기 구매를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관계자에게 352 만 달러를 지불한 후, 도미니카 공군에 약 9,200 만 달러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 개의 명의법인 회사에 지급되었다. 같은 해, Embraer 는 모잠비크 국영 상업 항공사인 Linhas Aéreas de Moçambique S.A 가 Embraer 항공기 2 대를 6,500 만 달러에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그 항공사 관계자에게 80 만 달러를 지불했다. 이 거래는 모잠비크 관계자가 지정한 중개인과의 거짓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. 2009 년, Embraer 는 인도 공군에 3 대의 특수 군용기를 판매하기 위해 인도의 한 대리인에게 576 만 달러를 지급했다; 이러한 지불은 비정당한 컨설팅 계약의 일부로, Embraer 의 장부와 기록에 거짓으로 기재되었다. 마지막으로 2010 년, Embraer 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유 및 통제하는 회사 관계자에게 3 대의 항공기 구매 보장을 위해 165 만 달러를 보냈다. Embraer 의 이 모든 항공기 판매 수익은 거의 8400 만 달러에 달했다.

기소유예약정에서, 미 법무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이 약정을 체결하고 1 억 700 만 달러의 벌금(미국의 양형 기준에 따라, 적용 범위의 하위보다 20% 이하)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. 고려된 요인에는 Embraer 이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, 증권 거래 위원회의 소환장을 받았을 때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한 것, 행위 당시의 부족했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차후에 더욱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시행할 의도, 완전한 개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. 특히 Embraer 는 이번 이슈의 행위와 연관된 관리자와 직원들은 징계했지만, 이메일 증거에 따라 이르면 2004 년 있었던 뇌물 수수 논의에 대해 알고 있었고,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고위 간부는 징계하지 않았다.

우리는 Embraer 의 최근 해외부패방지법 합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. 미 법무부의 기소유예약정은 Embraer 가 제 3 자 기업 및 컨설턴트에게 적절한 실사를 요구하고, 제 3 자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 지불 과정에 대한 관리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적절한 내부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. 기업은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한 위반을 막기 위하여 제 3 의 업체 혹은 컨설턴트와의 거래에 있어 강력한 내부 준법 감시 절차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.